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일본은행, 경제성장을 3% 상향조정 전망

□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, 일본은행이 경기회복세 진전으로 조만간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3% 대로 상향할 것으로 전망됨.

- 로이터, 아사히신문 등 주요 언론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일본은행이 이르면 1월 말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작년 10월 2.1%로 제시했던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3%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함.
- 이에 앞서 17일 32개 지점장 회의 이후 제출한 1월 지역경제 보고서에는 총 9개 지역 중 6개 지역에서 민간소비가 다시 증가하거나 혹은 바닥을 지났으며, 전 지역에서 고용 및 소득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일본 경제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

□ 일본은행의 경제성장률 상향 전망은 최근 엔화강세 및 유럽발 재정위기와 같은 대외불안 요인 진정, IT기업들의 실적 호조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됨.

- 당초 일본은행은 에코카 보조금 중단 등 정책효과 소멸과 신흥 국가들의 성장 둔화로 작년 말부터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이후에서야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함.
- 그러나 대외불안 요인이었던 엔화강세 및 유럽발 재정위기의 진정,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및 LCD반도체 전자부품의 전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주요 수출품목인 IT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임.
- 지난 일본은행 지점장 회의에서도 지점장들은 글로벌 경기회복과 정부의 재정확장정책이 다소나마 지역경기 회복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올해 초부터 경기회복세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.
-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경기부양과 디플레이션 압력 억제를 위해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광범위한 자산 매입과 자본공급 규모 확대와 같은 추가 금융완화조치는 재정악화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있음.